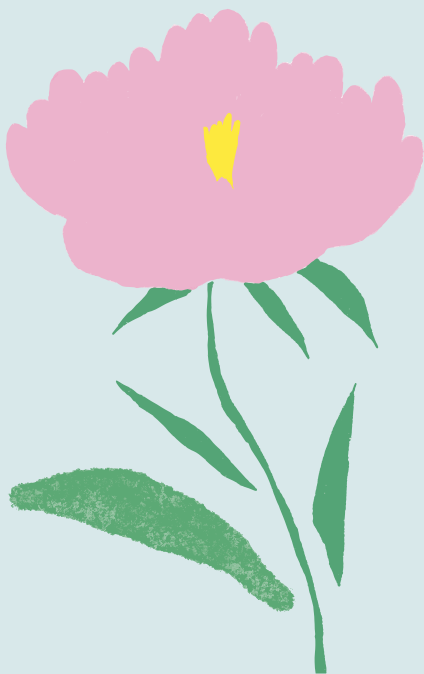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7. 16.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23장 1~4절

다 같이

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의 원주민에게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겸손을 보여주는 말임과 동시에 진정한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깨달은 아브라함의 신앙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14절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지상의 삶이란 단지 나그네의 여정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은 어떤 삶인지 돌아보는 시간이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גֵּר, 게르)는 '길 옆으로 벗어나다'란 기본 뜻을 비롯하여 '잠시 거하는', '객이 된'등의 뜻을 가진 '구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타국인', '이방인', '거류하는 자' 등의 뜻을 갖습니다. 즉, 나그네란 고국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서 잠시 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금은 비록 이방에 머무나 항상 고국을 생각하며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그 국민됨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기보다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거류하는 자

히브리어로 '거류하는 자'는 '토샤브(תּוֹשָׁב)'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거주자'나 '주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특정 장소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나그네'나 '외국인'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형편에 따라 이방에 머물러 있지만 영구히 살 의사는 없으며, 따라서 그 땅에 정을 주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때문에 성도 역시 이 땅은 잠시 살다 가는 곳이므로 지나치게 미련을 갖고 세상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정을 붙여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고향이 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정 붙일 곳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함께 천국 갈 가족과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

우리의 생활은 희노애락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이 세상의 삶이 긴 여정인것 같으나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석하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늘 나라로 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벌써 받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함을 통해서 세상과 다름을 증명해내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_____ 다 같이

1. 나는 지금 세상과 하늘 나라 중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2.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정을 붙이며 돌아보는 삶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3.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떤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있나요?

중 보 기 도 ----- 큰빛은혜교회를 위해 ----- 다 같 이

1.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2.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3.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 주고 섬길 수 있도록
4.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미래의 영적 리더로 서도록
5. 부흥회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늘 본향을 소망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며, 주님과 함께 본향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